

순천시 이상기후 선제 대응 농업·과수 피해 줄인다

올해 10억원 예산 확보 농작물 병해충 방제·신기술 보급 등 추진

순천시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 이변이 커지면서 노지 과수 재배 농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국·도비 및 시비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농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저온, 폭염, 집중호우 등



순천시 관계자가 사과 재배 현장 컨설팅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과 수형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지며 개화기 저온 피해, 병해충 확산, 낙과 등 과수 농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이 커지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비 4억원과 시비 6억원 등 총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확보된 예산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5억 5000만원)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3억 5000만원) ▲과수 신기술 및 재배 기술 보급(1억 5000만원)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농가 컨설팅 강화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상기후에 취약한 노지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상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는 농업 전반에 상시적인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도비와 시비를 적극 확보해 과수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밸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해 보성군 차문화시설 운영 수익이 전년보다 27% 증가하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봄재 그린다향에서 이용객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의 모습.

보성군 차문화시설 운영 수익 27% 늘어

연간 이용객 52만명 돌파

보성군이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내 차문화시설을 운영한 결과, 총 이용객 52만 3359명, 수익금 29억 25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이용객과 수익 모두 두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대비 이용객 4만 5305명(9.48%) 증가, 수익금 3억 6100만 원(27.31%) 증가한 수치로, 보성 차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 확대와 관광 수요 회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차문화 관광 거점 시설인 ‘봄재’는 2025년 이용객 13만 1266명, 수익금 7억 3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이용객 11.81%, 수익금 14.15% 증가한 실적으로, 말차 트렌드 확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말차 음료와 디저트, 차 기반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성녹차의 원산지 이미지가 재조명됐고, 이와 연계된 체험·상품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한국차박물관’은 2025년 이용객 13만 5384명으로 전년 대비 11.63% 증가했으나, 수익금은 8700만원으로 1.65% 감소했다.

한국차박물관은 보성 차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는 핵심 공공문화시설로서 상장성이 크며, 향후 체험형 전시와 관광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울포해수녹차센터’는 2025년 이용객 25만 6709명, 수익금 21억 35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이용객 7.24%, 수익금 14.81% 증기했다.

이용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나, 수익 증가율이 대폭 상승하며 높은 수익 창출 효율을 나타냈다. 이는 해수녹차탕 등 유료 프로그램 이용 확대와 체류형·휴양형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울포해수녹차센터는 보성 차문화시설 중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시설로, 지역 관광 체류시간 연장과 소비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성군 차문화시설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숙박·음식점·특산물 판매 등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녹차 원료 소비 확대를 통해 차 재배 농가와 관광산업 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제2우주센터·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총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 우주 인프라 집적화 촉진지

고흥군이 ‘한국형 스타베이스’ 구축을 완성하기 위해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가칭)’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우주항공 중심도 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고흥군이 ‘제2우주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가장 큰 당위성은 국가 우주 정책의 연속성과 인프라 집적화에 있다. 현재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1조 6000억 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제2우주센터가 고흥에 들어설 경우, 이미 구축된 고도의 인프라와 전문인력, 운용 경험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차세대 발사체와 유인 임무에 대비한 고도별 발사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기존 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는 발사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발사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흥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간 기상 양호 일이 250일 이상으로 안정적인 발사 운용이 가능하며, 지진이나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이 낮다는 점은 이미 나로우주센터 입지 선정 당시 충분히 검증됐다.

여기에 전국 유일의 우주센터를 조성하며 축적된 행정 경험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그리고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의견은 제2우주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다.

아울러 고흥군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을 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한 핵심 기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중 대전과 경남에 비해 발사체 거점인 전남(고흥)에만 전담 지원 기관이 없어 산업 육성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발사체산업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흥은 발사체산업 특구로서 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육성하며,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러한 고흥의 잠재력과 유치 노력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균형 발전 기조와도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자신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으로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다”며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특정 지역에 편중된 성장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흥군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유치해 대한민국 우주 삼각축의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합정된 지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미 우주 인프라가 구축된 고흥에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것이 국가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제2우주센터와 진흥원 유치를 통해 고흥을 글로벌 우주 랜드마크로 진정한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귀농·귀촌인 군비 보조

주택수리비 등 23일까지 신청

곡성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6년도 귀농·귀촌분야 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도시지역(동 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세대주이다. 단, 기수혜자,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협정 전 주택 수리 기구, 심사 점수 50점 미만, 주택 용지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 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풍족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당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창문 보수비를 지원하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만 65세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0만 원 보조 50%, 자답 50% 한도에서 시설하우스, 광경,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묵대, 가축 입식, 농지 구입 등 영농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귀농인 신규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들이 있다. 대상자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구례 원촌초, 아나바다장터 행사 수익금 기부

비 기간을 가진 후, 오는 3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관내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가구에 생활용품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만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이 2년째 ‘산동 나누고 가게’에 전해 준 작지만 소중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각계각층에서 보내주는 정성이 가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마음 또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 ‘산동 나누고 가게’는 올해에도 1~2월 정



광양시, 동계 청년 행정인턴 25명 선발 발대식

앱 신청 도입…경쟁률 대폭 상승

4주간 행정체험 진로탐색 기회

광양시가 지난 5일 광양청년꿈터에서 ‘2026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들에게 행정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동계 행정인턴 모집은 기존 방접수에서 벗어나 ‘MY 광양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처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25명 모집에 총 472명이 지원해 평균 1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제도 도입 효과와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동시에 확인했다. 특히 중마도서관은 1명 모집에 68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여수시 국동 익명 기부자 올해도 140만원 전달

여수시 국동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남성이 국동 주민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금을 담아 계시판 옆 화단에 두었으니 좋은 일에 써 달라”며 전화를 걸어 왔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봉투에는 현금 5만 원권으로 14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저는 국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도 넉넉한 실립은 아니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행동으로 옮기니 내 마음이 무척 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순편지도 함께 달려 있었다.

국동에 따르면 기부는 2021년부터 시작돼 매년 기부 금액을 늘려가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동주민센터는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국동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